朝鮮後期 村落構造變化의 背景

李 海 濬

1. 머리말
2. 농지의 저지대 확산
3. 촌락민 조직의 성격변화
4. 동족마을의 형성
5. 촌락의 분화양상
6. 맺음말

1. 머 리 말

지금까지 역사학부면에서 조선시대의 촌락변천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별반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는 대체로 조선시대의 향촌사회 관련논의들이 사족층의 재지지배권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으로, 예를들면 조선전기의 경우 사림의 재지지배권 확보가 중앙통치권력과는 어떤 갈등·타협점을 갖는가라든가, 향촌에서의 향리층과의 대립·마찰을 어떻게 극복하고 우위권을 확보하는가 등의 문제를 중요하게 취급하였다. 조선 후기사회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이러한 논의는 유사한 체계 속에서 진행되어 '守令權과 士族權', '舊鄕과 新鄕', 혹은 사족상호간의 내부갈등 문제가 집중적인 관심사항이었던 것이다.

물론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사회구조나 성격을 이해함에 있어서 봉건지배층이었던 재지사족의 위상과 성격은 매우 중심되는 과제임에 틀림없다. 각 시기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조선시대는 전 기간동안 지배계급으로서 사족들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리하여 중세지배층으로서의 사족은 국가권력과 상호관계하에서 신분적 경제적으로 下民에 대한 지배권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각이 이처럼 사족층 중심으로 편향되면 여타 세력에 대한 이해가 축소·굴절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사족만을 주체로 한 기존의 이해는 새롭게 성장하는 중인층이나 서얼층, 상공인 세력, 나아가서 기층민의 성장과정을 피동적·객체적인 것으로 고정시켜 둘 수 있으며, 이는 나아가 이 시기 사회변동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려 하였을 때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1] 물론 기존의 연구에서 촌락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김인걸, 정진영, 이해준의 연구는 바로 그러한 촌락변천을 조감하면서 부분적으로 촌락의 위상을 점검하고자 하였지만,[2] 역시 기본적으로는 촌락을 사족의 지배대상으로 이해하는 수준이었고, 따라서 촌락이나 촌락민들을 주체로 인식하는 데는 미흡한 실정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촌락과 기층촌락민의 존재,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기능 추적은 실제적인 작업과정상 많은 어려움이 개재된 부분이기도 하다. 지배층에 의해 지배층중심으로 기술된 자료상에서 이들의 기록을 추출해 내는 문제, 그리고 부각되어진 기록들이 과연 일반적인 기층민의 생활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것일 수 있느냐하는 문제, 여기에 더하여 향촌 단위 사회별로 존재하는 구조적인 성격들을 논외로 하는 등등 너무나도 많은 난제들이 부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어려움 탓인지 지금까지는 '촌락과 촌락기층민'들의 모습이 역사학보다는 인접분야인 민속학, 지리학, 인류학분야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인접분야 연구는 촌락변화와 촌락민의 의식을 계기적으로 확인하는 데 제한이 많고, 단층적 혹은 현시태로서 분석하고 있어서 역사학분야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각 시기의 촌락 혹은 기층민조직의 변화상 규명은 비단 뒤이은 시기의 변혁운동과 연관된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당시대 사회구조의 온전한 복원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흔히 村·洞·里로 불려지는 마을단위의 기층민과 그들의 조직들은 전통적인 공동체적 생활방식(운영체계)을 가지면서 존재해왔을 것이다. 또한 그들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은 자체 성장·발전의 계기나 과정을 거쳐 증대되기

(1) 졸고, 〈조선후기 향촌사회질서의 변화와 기층민문제〉《대구사학》 제37집, 1989

(2) 김인걸, 〈조선후기 촌락조직의 변모와 1862년 농민항쟁의 조직기반〉《진단학보》 제69집, 1989
정진영, 〈18~19세기 사족의 촌락지배와 그 해체과정〉《조선후기 향약연구》 민음사, 1990
졸고, 〈조선후기 동계 동약과 촌락공동체 조직의 성격〉《조선후기 향약연구》 민음사, 1990; 〈조선시대 향도의 변화양상과 촌계류 촌락조직〉《역사민속학》 창간호 1990

도하고 혹은 이들을 직접 지배하에 수렴하고자 하는 외적인 힘(통치체제, 지배층의 의식)의 강약에 따라 좌우되기도 하였을 것이다. 또 전통적인 촌락들은 기본적으로 '자연조건=생산조건=체제변화=의식변화'라는 내외적인 상황의 전개와 연결되면서 변화되었다고 생각된다.(3) 따라서 조선시대의 촌락변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결국 이같은 제 조건을 포괄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촌락의 변천을 예증함에 있어 그 증거를 '집촌화' 현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촌락의 조직과 운영체계의 '분화' 현상으로 볼 것인지도 문제이다. 그런가 하면 조선후기의 촌락변천 배경도 ① 내재적인 성장능력이 온축된 결과이냐, 아니면 ② 체제 변화과정의 산물이냐를 구분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자는 일편 민중의식과 민중조직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강조점을 가지게 될 것이고, 후자는 봉건사회 체제의 한계와 모순을 확인하는 작업과 크게 연결되리라고 보여진다. 물론 이 양자는 상호보완적인 설명을 위한 장치인 셈인데 본고는 이중 우선 ①의 측면, 즉 촌락변화의 내적인 요인으로서 주목되는 농지의 확대와 생산력증가, 촌락민조직의 변화과정, 동족적인 기반 위에 형성되는 동족마을의 문제, 그리고 끝으로 촌락의 분화상을 중점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4)

2. 농지의 저지대 확산

조선전기 이래 자연촌들은 散居集團으로, 정부는 이들을 면리체계로 편제하고자 하였지만(5) 조선후기의 경우처럼 '郡-面-里(洞)-村'의 행정편제가 확연하게 위상지워져 있지는 않은채, 반독립적인 형태로 자연촌락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것은 성종대의 기록에 보이듯 "외방은 산천으로 서로

(3) 전통적인 촌락의 기본구조는 '자연=생산=체제=의식'을 포괄하는 문화공동체였다고 보여진다. 즉 전통적인 촌락은 구체적으로 ① 지리적 환경 및 경제적인 조건을 공유하는 地緣體, ② 생활문화 공간으로서의 동네, ③ 행정편제상의 里·洞·村의 중층구조, ④ 혈연과 신분적인 구성체로서의 성격들이 복잡하게 연결된 것이었다.

(4) 물론 ②의 측면도 사족지배체제의 한계라든가 중앙정부의 촌락통제방식의 변화를 통하여 재정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이는 본 논의와 밀접하게 연결되리라고 보여진다. 이에 대하여는 別稿로 정리하고자 한다.

(5) 박진우, 〈조선초기 면리제와 촌락지배의 강화〉《한국사론》 제20집, 1988

격리되어 인가들이 요원하므로 5가로 작통하기가 어려울듯 싶다"[6]고 하였던 것이나, 《慶尙道地理志》를 볼 때 101호~4호에 이르는 촌락호수의 현격한 편차[7]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둑과 제방, 저수지개발 등으로 농경지역이 평야·저지대로 확산되면서,[8] 그리고 이를 주도하는 재지사족들의 위상강화를 배경으로 몇개의 자연촌락이 우세한 중심촌락=사족촌락에 부수된 형태로 연결되어 성장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같은 촌락의 성장배경과 과정은 이 시기의 조선사회구조가 신분제와 지주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사실과도 일정하게 연계된다고 생각된다. 즉 평야 저지대로의 농지확산과 집약농법의 발달은 생산력의 증대와 함께 집촌화를 가능하게 하였고, 이들 집촌들은 주도적인 사족촌락을 중심으로 상대적인 결속력을 강화하여 광역화하는 추이를 보여주게 된다. 사족적 배경에 토대한 중심촌락들(洞·里)은 지연적인 생활 및 경제공동체로서 주변의 자연촌(村·谷·亭·坪)들과 공존하면서 신분적 경제적으로 보다 하위에 있던 이들을 통할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체로 임란기를 전후한 시기의 촌락구성은 일정한 지연적 공동체로서 수개 또는 10여 개 자연촌락들이 하나의 洞契(洞約)체계 속에 묶여 있었으며 그중 대표되는 '洞'(本洞)과 '里'(本里)가 이들 전체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9] 예컨대 영암 鳩林里의 경우 이 마을 洞契의 범위를 말할 때 '열두동네'라는 인근 마을이 모두 포함되고 있으며, 대구 夫仁洞의 경우[10]나 영동지방 助山里의 大洞契사례,[11] 최근 필자가 조사한 安東의 佳谷里[12]나 인접한 素山里의 경우 등이 모두 비슷한 양상이다. '里'와 '洞'에는 사족이 집거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하위에 있는 수 개 또는 10여 개의 마을을 지배

(6) 《성종실록》 21년 윤 9월 갑신조 特進官 尹孝孫啓
(7) 예컨대 密陽都護府 慶州 越境處, 淸道西村 仇佐里 : 民戶一百一, 永川郡 北村 古新驛里 : 民四戶와 같은 차이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8) 이태진, 〈15·16세기 신유학 정착의 사회경제적 배경〉《규장각》 제45집, 1981; 〈16세기의 川防(洑) 灌漑의 발달〉《한우근박사 정년기념 사학논문집》 1981
(9) 앞의 졸고 및 〈17세기초 진주지방의 里坊再編과 사족〉《규장각》 6집, 1982
(10) 정진영, 앞의 논문
(11) 이규대, 〈조선후기 洞契와 洞役〉《조선후기 향약연구》 민음사, 1990
(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의 향촌민속지(1)》 경북 안동 가일마을 조사보고, 1992

(통제)하고 그 지배의 틀로서 상위 촌락조직인 사족들의 洞契·洞約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 광역의 洞(里) 밑에 존재하던 작은 자연촌들이 바로 18세기 후반이후 촌락분화의 과정에서 독자적인 조직과 규모를 지니면서 독립된 마을로 분화 발전하였다고 생각된다.

촌락의 농업발전 기저를 이루는 경지면적의 증가와 그것이 평야 저지대로의 확산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은 지리학 분야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양보경은 화성군 반월면 4리 동족마을을 조사한 바 있는데[13] 이중 촌락의 입지(해발고도)는 거주년대가 확인되는 경우를 표집하였을 때

감자골 : 1510년(20m) 1770년(13m)
분 대 : 1541년(23m) 1544년(18m) 1712년(22m)
삼밭절 : 1631년(18m) 1653년(18m) 1705년(16m)
항가울 : 1605년(15m) 1626년(23m) 1740년(20m) 1776년(15m) 1778년(10m)
1812년(15m) 1844년(12m) 1860년(16m) 1870년(6m)
긴 곶 : 1614년(18m) 1664년(18m) 1680년(18m) 1780년(18m) 1800년(16m)
1846년(15m) 1880~90년(13m)

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보면 마을의 입지조건에 따라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16세기의 경우 해발 20~25m에 입지하던 거주면이 점차 야지로 이동하여 17세기에는 15m정도, 18·19세기에 이르러 10m 어간의 해발고도에 거주면이 형성됨을 알 수가 있다.

한편 이 중 분대마을의 제방 건설년대를 상관하여 보았을때, 제방은 3차례에 걸쳐 건설되는데 각 시기의 확대 농지를 대비하면 1540년(해발 10~15m 연결) : 1700년(해발 6~10m) : 1820년(해발 5~5m)=1 : 2 : 6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웃 항가울-긴곶마을의 경우도 1614년, 1650년, 1700년, 1720년에 제방이 마련되고 있는데, 연결부분의 해발 고도는 각각 10~15m, 10~13m, 6~10m, 0~5m 등으로 저지대로 확대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이에 따른 경지의 증가는 1 : 4 : 7 : 30 정도로 추정된다.[14]

(13) 양보경, 〈반월면 4리 동족부락에 대한 연구—기원과 발달과정을 중심으로—〉 《지리학논총》 제 7 호, 서울대지리학과, 1980

(14) 항가울마을의 1720년에 건설된 제방은 매우 규모가 큰 것으로 뒤이은 1755년에 (영조 31) 이곳에 仁嬪金氏의 順康園 궁방토가 설정되고 있다(《영조실록》 31년 을해조).

위의 사례는 해안지역의 경우였는데 이같이 농지가 평야 저지대로 확산되어가는 사례는 江岸이나 山間지역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洞約 자료가 남아있어 주목되는 전남 영암 구림마을의 경우가 바로 그같은 사례로서 1540년경 선산임씨 林九齡의 指南提 건설이후 인척으로 연결된 여러 성씨들이 鳩林洞契와 靈巖鄕約의 주도세력으로 성장해간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15) 지남제는 해발 5~10m의 구릉을 연결한 제방으로 오늘날도 속칭 「지남들」로 불려지는 천 여마지기의 넓은 농토가 이로써 새롭게 조성되었으며, 구림마을 주변의 '열두마을' 형성에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구림마을의 열두동네는 중심부인 서호정 마을을 비롯하여 남송정, 북송정, 동정자 같은 반촌과 지남제로 인하여 확대된 농지에 인접된 양지촌, 음지촌, 알뫼, 학암, 쌍화촌, 洞契, 고산, 신흥촌 등의 민촌을 포함한다. 이들은 하나의 광역화된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鳩林洞契는 바로 이를 통할하는 중심사족들의 조직이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16~17세기 재지사족의 촌락지배는 대부분 이같은 농지의 확대(개간 및 제언의 축조)를 경제적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16) 결국 농업생산의 토대가 되는 농지의 확대과정은 그를 주도한 촌락이나 세력으로 하여금 이후 관련된 촌락운영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촌락간의 관계와 사족지배질서를 반영하는 증거가 바로 16~17세기에 일반화된 洞契와 洞約 조직의 발달이며, 이 시기 재지사족에 의해 편찬되는 사찬읍지들에서 마을관련 기록이 충실한 점 또한 그러한 추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확인한 임란직후 진주지방의 리방재편에서 사족의 주도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사례 역시 그같은 상황을 잘 예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17)

한편 우리는 이러한 촌락의 변화과정을 반영하는 법제적 자료로서 1675년(숙종원년)의 「五家統事目」을 주목하게 된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성종 21년의 五家作統 不合理論에 이어 효종초에 이미 備局에서 '오늘날에 적합한

(15) 졸고, 〈조선후기 영암지방 동계의 성립배경과 성격〉《전남사학》제 2 집, 1988
(16) 《여지도서》(1759년)에서 보는 바와같이 18세기의 읍지류에서 제언수의 급증현상이 보이는 것이나, 또 촌락의 인구와 전결수에 대한 기록이 충실해지는 것은 바로 이같은 촌락의 발전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17) 앞의 졸고 참조

것으로 시행한다면 이익됨이 있을 것'이라는 상황변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뿐만아니라,[18] 이 사목의 마련이 결국은 변화된 촌락기반을 염두에 둔 구체적인 시행방안이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오가통사목」에서는 마을의 규모를

小里 5~10統(25~50戶)
中里 11~20統(55~100戶)
大里 21~30統(105~150戶)

로 구분하여 이미 집촌화의 경향을 반영하는 모습이며, 아울러 每里마다 里正과 有司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19] 바로 이들 집촌화된 촌락들이 면리제와 리정법에서 최소행정단위로 상정되는 공동체가 되어갔던 것이다. 다시말하면 面里制나 里定法은 이같은 자연촌락의 발전과 병행하여 마련된 제도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20] 바로 이같은 오가통사목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여지는 1717년(숙종 43)의 《단성현호적》을 보면 단성현은 8개 면으로 나누어져 있고 예하에 총 77개 리와 496개 통이 조직되어, 마을당 평균 33호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1]

3. 촌락민 조직의 성격변화

이상에서 우리는 조선후기 촌락변화의 중심요인으로 인구나 생산력의 발전과 직결된 농지의 확대문제를 다루면서, 그것이 촌락의 분화나 변화에 커다란 계기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와함께 우리는 촌락의 자체성장 요인으로 촌락민의 조직에 대하여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본절에서는 이같은 촌락민의 조직이 사족중심의 지배조직과 어떠한 상관하에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었는지를 점검하여 보고자 한다.

---

(18) 《증보문헌비고》 권161, 戶口考 1
(19) 《숙종실록》 1년 10월 신해조, 《비변사등록》 31책 숙종원년 9월 26일조
(20) 김준형, 〈조선후기 면리제의 성격〉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2; 〈18세기 里定法의 전개〉 《진단학보》 제58집, 1984
(21) 박성식, 〈18세기 단성지방의 사회구조〉 《대구사학》 15-16집, 1977~78
김석희, 〈경상도 단성현 호적대장에 대한 연구〉 《부산대 인문논총》 1983
김석희, 〈박용숙, 18세기 농촌의 사회구조〉 《부대사학》 3집, 1979

사족중심의 지배질서가 확립되면서 조선전기 공동체적 기반을 가졌던 대부분의 촌락조직들은 지주제적 강제와 향약질서의 강요로 그 기반이 사족들의 통제구조하에 귀속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향약의 실시논의와 함께 그 하부단위로의 활용이 거론되는 '鄕村結契'類의 촌락민조직들은 고려말이래의 자연촌적인 香徒와 계통을 같이하는 것들이었다. 대체로 이들 조선전기의 향도조직들은 그 조직의 범위를 里·鄕里·隣里·里中·村 등의 말단 자연촌락을 단위로 하고 있고, 구성원도 7~9인에서 100인 혹은 40~50호정도의 常賤民(里里賤人·窮人·里巷人)으로 하였다. 또한 이들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행사들도 공동노역이나 마을의 잡역, 그리고 무속적인 전통이 가미된 마을제사(淫祀 ; 당제·동제), 관혼상장의 공유와 그 부조가 주된 것이었다. 그리고 몇몇의 사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정례화, 혹은 정기적인 행사의 모습도 지닌 것이었다.[22]

이들 鄕徒·淫祀·洞隣契 등 香徒類(村契類) 기층 촌락민조직들은 성리학적 사족지배질서가 구축되어가는 과정에서 사족계나 향약조직의 하부구조로 대부분 편입되어 지배이념과 근본적으로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부분적인 기능만을 담당하거나, 아예 지배층의 下民지배틀 속에 귀속되어 갔던 것이다. 16~18세기의 洞契(洞約)구조속에서 확인되는 촌락조직들, 예컨대 영암 구림의 四山香徒(1565년)나 안동 하회의 小契(1584년·1618년), 태인 고현리의 各契(1666년), 영암 화수정의 村契(17세기 후반), 의령의 香契(1692년), 영천 망정의 私契(1735년), 영암 영보정의 各村契(1772년) 등등은 洞契류 조직의 하부에 엄연히 존재하던 기층민들의 촌락조직 모습을 보여주는 예들이었다.[23] 이들 촌락조직들은 계통상 조선전기 이래의 향도조직과 연계되면서, 대개는 사족들의 洞契(洞約)조직의 하부단위로 편제되어 있었던 사례들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기층민들의 촌락조직을 상하합계의 형태로 포섭하려던 16~17세기 사족들의 洞契조직은 본질적으로 사족중심의 향촌재편을 목적하면서, 수령권의 촌락(혹은 사족지배력)에 대한 통제를 방어하려는 노력의 일단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16~17세기 상하합계 조직은 본질적으로 상하민간의 목

(22) 졸고, 〈조선시대 향도와 촌계류 촌락조직〉《역사민속학》 창간호, 역사민속학회, 1991

(23) 졸고, 〈조선후기 洞契·洞約과 촌락공동체조직의 성격〉《조선후기의 향약연구》 민음사 1990

적과 이해가 다른 상태에서 상위조직인 上契에 의해 주도되게 마련이었고, 이미 기본적인 한계를 노정한 사족들이 기존의 특권과 영향력을 강요하는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족들의 편입요구에 대한 촌락조직들의 반발양상도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예컨대 河回洞契의 예처럼 1584년 창설 당시 하민들의 小契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가 1618년 상하합계의 형태로 洞契가 증수되면서 이들 小契 조직의 전통이 규제(小契禁斷)를 받고 편입을 강요당하거나, 의령의 '私作香徒革罷'(1692년), 영천 망정의 '里人私契 洞約忌避'(1735년) 사례는 그러한 예들이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의 측면에서 당시 일정한 수준의 자체성장 과정을 겪고 있던 촌락기층민들은 上下合契의 洞契운영에서 자신들의 참여 폭을 이전에 비해 훨씬 확대하였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고, 그같은 경험의 축적을 통해 계층적인 자기인식의 분위기도 성숙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즉 촌락기층민들은 그들대로 제한된 당시의 사회구조 속에서나마 이같은 현실에 대한 인식과 대응의 방향을 일정하게 모색하고 있었으니,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제기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는 두레발생과 농업기술상의 변화 연결 논의는 그런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24] 주지하듯이 이앙법은 이전의 직파법에 비해 노동력을 결정적으로 감소(5분의 4)시킬 뿐만 아니라, 광작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생산량의 증가를 가져오고 그같은 경제적·시간적 여유는 공동노동조직의 운영기반을 충실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두레조직은 기본적으로 지주층의 참여와 간섭을 배제하여 자작·소작농민을 성원으로 했던 까닭에 신분제적 강제나 지배층의 모순강요, 법외의 침탈이 가중되었을 경우 이를 벗어나려는 공동적인 대응과 자체결속을 모색할 수 있었을 것은 자명하다. 여기에 생산력과 연관된 경제기반이 확보되었을 때 그 기능은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고 이들이 명실상부하게 기층 촌락민의 입장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부상하였을 가능성은 쉽게 추측이 된다. 18세기 중엽이후 上下合契형태의 洞契조직에서 下契가 없어지는 현상도 이같은 두레조직의 위상강화나 반발과도 어느 정도 연관된 것이었다고 보여진다.

한편 수개의 자연촌을 아우르는 사족들의 洞契조직은 기층촌락민들의 조직(촌계류)과 비교할 때 조직의 목적과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었다. 洞契조

(24) 이태진, 〈17·18세기 향도조직의 분화와 두레발생〉《진단학보》 제67집, 1989

직의 하부단위로서 존재했던 이들 촌락민들의 촌계조직들은 기층민의 조직으로 그들의 생활문화적인 기반 위에서 자연마을 단위로 존속되어온 것으로, 현재까지도 전승되는 洞祭·堂祭(당산제)類가 바로 이들 촌계류 촌락조직의 잔영이다. 물론 현존양상으로만 보면 일부 유교식의 축문이나 제의가 부가되어 있어 혼돈을 야기시키기도 하지만, 이는 이들 촌계류조직이 복잡하게 경험했던 지배조직과의 접합과정을 보여주는 흔적일 것이다.(25) 그리고 실제 촌락의 운용이나 구성상 촌계류조직이 본래 담당한 영역은 동제로 대표되는 마을의 민속적 제의와 공동노역(잡역 : 울역)이나 동린적인 상장부조였고, 노동조직으로서의 두레조직도 16~17세기에는 이들 촌계류조직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혹은 그 예하의 청장년조직으로 중첩적인 구성을 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洞契조직과 村契조직의 이같은 일정한 역할분담은 18세기 이후 사족 지배력의 이완현상과 함께 진전되는 촌락의 발전, 특히 분화의 과정에서 변모된다. 특히 촌락들이 자연촌단위로 분화되는 상황에서 사족들의 洞契조직은 관념적인 형태로 남거나 형해화되어, 그 영향력의 범위가 소위 本洞(本里) 혹은 사족 신분간의 상호부조적인 역할로 한정되었고, 자연촌단위에서는 촌계류조직들이 오히려 실제적인 촌락운영을 담당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동제(당제)도 큰 堂이나 작은 堂으로 분화, 혹은 아예 다른 堂을 새로 마련하여 독립하고,(26) 노동조직으로서의 두레도 마찬가지로 자연촌의 구조에 맞게 재편되어갔을 것이다.(27) 상장부조의 기능면에서도 이러한 촌락분화와 관련된 사실은 추적이 가능하다. 예컨대 洞物(상여·혼례도구)이나 동답의 분리운영, 서당의 분립 같은 변화가 그러한 상황을 말해준다.

결국 이같은 촌락의 분화과정을 겪으면서 마을의 운영과 조직체계도 과거

(25) 이에 대하여 김용덕은 약간 다른 의미로 洞契와 촌계를 해석하고 있다(김용덕, 〈洞契考〉《두계 이병도박사 구순기념한국사학논총》 1987 및 〈조선후기의 지방자치—향청과 촌계—〉《국사관논총》 제 3 집, 1989년).

(26) 이규대, 〈19세기 영동지방 洞契의 성격〉《조선후기 향약연구》 민음사, 1990

(27) 두레조직의 성격을 이해할 때 그것이 철저하게 마을 단위로 조직되고 있었음은 수많은 사례로서 검증이 되며(주강현, 〈두레 공동노동의 사적 검토와 생산문화〉《노동과 굿》 학민사, 1989년), 두레의 분화과정은 형제두레나두레기세배드리기 같은 잔존민속으로서도 충분히 확인된다.

'洞契-村契' 간의 연결구조보다는 '촌계-동회·동제조직', '두레-생산조직', 기타 '상장부조 조직들(목적계류)' 간의 연결과 상대적인 역할분담이 오히려 문제되는 상태로 변해 갔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특히 19세기 이후 민중의식의 성장과 사회 모순의 증대는 노동조직으로서 계층적 이해를 반영하는 두레조직의 역할과 주도력을 보다 강화시켜, 촌계류조직이 지녔던 기존의 영향력을 대부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19세기의 두레조직들은 단순히 촌락내에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촌락 외적으로도 두레끼리 연대의식을 가지게 된다. 민속적으로 호미씻이나 대동두레의 모습을 통해 이같은 두레조직간의 연대의식은 확인되며, 두레조직의 집회소로 상정되는 모정·농청·우산각·농막들도 또한 계층적인 이해기반을 달리하는 상천민들의 집회소로 주목된다. 영암 군서면 죽정리의 茅亭이 초군·술동무·메구군들이 모이는 장소였다는 보고나 강진 송덕리 송현의 모정이 유두·칠석·백중때에 모임장소였다는 보고들은 그러한 성격과 연대의식의 구현장으로서 기능할 가능성을 잘 말해준다.[28]

4. 동족마을의 형성

조선후기의 촌락변화상을 살핌에 있어 그 내적인 변화요인으로 우리는 조선후기 가족 및 친족체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조선후기에 일반화의 추이를 보여주는 동족마을의 형성과 발전을 주목하게 된다.[29] 물론 이제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동족마을은 대체로 班村인 경우가 많고, 그 때문에 일반 民村이나 役村의 동족적인 기반에 대하여는 크게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양반가문의 동족기반 강화와 그로인한 동족마을 형성은 조

(28)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남편—》 1977년

(29)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같은 동족마을의 발달이 과연 17세기 중엽이후의 친족체계 변화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으로만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이미 이전시기부터 지속되어온 족적인 규모확대와 그 조직의 과정으로 초래된 동족마을 형성이 결과적으로 조선후기의 여러 문중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한 기본 배경은 아니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것같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鄭勝謨의 견해를 경청할 필요를 느낀다. 그는 〈향촌지배세력의 형성과 조직화 과정〉(단국대 동양학 학술회의 강연초, 1989)에서 기본적으로 족적결합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수 대에 걸친 재생산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따라서 족결합의 시기를 임란이후(구체적으로는 17세기 중엽이후)로 보는 견해에 반대하고 있다.

선후기 전체적인 촌락구성이나 촌락간의 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시키는 또다른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족마을은 친족적인 연대가 강한 반면 타성씨나 비동족에 대한 폐쇄적인 성향이 강하였으므로 동족마을이 일반화하였다면, 이 역시 조선후기 향촌사회의 촌락구성 모습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족마을은 동성마을, 혹은 씨족마을로 불려지면서 사회학·인류학 부면에서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분야이다. 동족마을은 대체로 하나의 지배적인 同姓同族集團이 특정 마을의 주도권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거주하여온 마을을 말하지만,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서 그 성격들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30) 그러나 이같이 정의는 각각 다를지라도 동족마을의 형성배경이 대체로 嫡長子 중심의 家夫長的 宗法體系의 진전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는 일치하는 경향이다. 조선전기의 친족체계가 새로운 종법질서의 정착으로 가부장적인 부계친족체계가 일반화되자 촌락의 주도집단 구성도 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논의가 바로 그것이다.(31) 이수건은 조선전기의 내외친족관념과 이에 따른 자녀균분제 하에서 각 마을의 구성원들은 성씨는 다르지만 內外孫 姻戚으로 동거하면서 家財와 田畓·山林과 水澤·墓山 등을 공유하는 상호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본다.(32)

---

(30) 즉 ① 동일한 선조, 동성동본자가 한 마을에 집단거주하는 것(善生永助, 《朝鮮の聚落》, 1933), ② 동조, 동족의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집합적 행동을 통하여 결속될 지연적 생활공동체, 즉 단지 동족의식에 기초한 靜的 共存態에 그치지 않고 선조제사, 친목, 경제적 협동, 자위자강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지연의 이해를 갖고 집합적행동을 하는 생활공동체(김두헌, 《한국가족제도연구》, 1969), ③ 한 마을안에 존재하는 비교적 다수의 동성동본의 사람들이 조직체를 갖거나 적어도 집단적 행동을 취하는 마을(최재석, 《한국농촌사회연구》, 1978), ④ 촌락내의 조직과 씨족조직이 일치하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이 일치할 때, 수적인 위세나 선조의 권위가 존속되는 경우 그 자손들의 사회적 경제적 권위가 보장되는 마을(정진영, 〈조선후기 동족마을의 형성과 사회적 기능〉 1991) 등의 정의가 바로 그것이다.

한편 이러한 동족마을의 일반적인 성격에 대하여 최협은 동성마을이 대체로 이동이 없고 폐쇄적인 데 반하여 비동성마을(집성마을, 각성마을)은 개방적이며 평등성이 보인다고 비교를 하는가하면, 이광규는 친족을 X축으로 공동체를 Y축으로 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정리하기도 하였다.

(31) 李樹健, 〈良洞의 歷史的 考察〉《良佐洞硏究》 1990

(32) 조선전기의 마을은 대체로 내외친족이 동거하면서 소수의 사족(양반호)과 다수의 평, 천민호로 구성되는 모습이 일반적이었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정진영의 앞 논문에 의하면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동족마을로 손꼽혀지는 양동

조선전기 散村들이 이같이 점차 성씨를 주축으로 하는 혈연적인 集村으로 새롭게 변모하게 되는 데는 조선 건국이래 사족들의 이거와 정착과정이 연관되어 있었다. 려말선초의 전환기에 사족들은 妻鄕이나 外鄕 등 연고지를 따라, 혹은 鄕, 所, 部曲 등 행정편제상 중앙정부의 통제가 철저하지 않은 지역을 확보하여, 자신들의 새로운 정착으로 선정하였다. 대개 入鄕祖나 落鄕(南) 祖로 불려지는 조선전기 이들 이거사족들은 이후 동족적인 확대와 조직화과정을 겪으면서 그 지역의 후손들에 의하여 派祖나 中始祖로 추앙을 받는다.

이들은 앞절에서 보았듯이 16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川防(洑)의 개발을 통해 농지를 확대해간 주체이었으며, 이 시기에 발전하는 수전농법과 이앙법의 발달에 힘입어 사회경제적 지배력을 확보해간 세력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농지가 평야 저지대로 확산되고 집약농법에 근거한 소농민경영의 생산방식에 따라 생산력이 증대되자, 이를 주도했던 재지사족들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나 그들을 중심으로 하는 신생 촌락들은 급속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 촌락공동체적인 생산방식의 동원이 촌락발전과 맥을 같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체로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력과 인력동원 능력을 지닌 유력사족층은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마련이었고, 결국 이를 주도하는 사족들의 사회적인 위상도 강화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주도적인 지위가 도전받게 되는 17세기 후반 이후의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식으로 사족가문들은 族的인 결속력 강화를 도모하고, 그것이 바로 조선후기에 나타나는 문중활동이었던 것이다. 즉 宗家를 주축으로 가문의 종래 지위를 유지 존속하려는 의지가 문중의 조직화 내지는 본절에서 살피려는 동족마을의 형성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그러나 16~17세기 전반의 상황에서도 사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지되었다고는 하지만, 족적 규모의 지속적인 팽창 속에서 특수하게 경제력을 계속 확대해간 일부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수건의 지적처럼 균분상속제의

마을의 경우(1599년 所志) 실제 거주호는 사족 14명, 노비 38호로 되어 있고, 15~16세기의 하회마을의 거주성씨 구성도 류씨의 사위, 외손, 다수의 노비 및 평천민호로 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下人中 又 各以其里 別作小契或 二十餘家, 洞案 1589~1618년 류씨 57%, 1615년~1635년 39%를 점유).

오랜 시행은 결국 사족들의 가산분할을 결과하여 빈곤화와 생산력 저하를 초래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즉 조선전기 內外親族이 동일시되는 친족관념하에서 재산의 자녀균분은 사족들의 재산 확대의 수단과 과정으로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만, 균분상속의 계속적인 시행은 사족의 재산 소유를 영세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결국 17세기 중엽이후의 차등상속은 이에 대한 대응현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33) 그리고 이같은 상황아래서 조선전기에 2~3개의 이성친족이 동거하면서 혈연과 지연에 근거한 동족적 유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마을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같이 동성 동족의 족통과 경제적 근거가 중심이 되는 동족마을의 형성은 宗家를 중심으로 하는 결속력과 이를 통한 사회경제적 특권의 유지 존속을 도모하게 마련이었다. 따라서 이들 동족마을은 조선후기 다양한 문중조직과 활동의 중심체 내지는 기초단위로서 존재하였고, 이를 통한 특정 성씨의 마을내 주도권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 시기처럼 이해를 같이하던 異姓親族이나 傍系親族의 지위는 감소되게 마련이었고, 이들이 점차 마을 조직에서 이탈하므로써 보다 완전한 同姓 同族마을로의 위상을 마련하게 된다.

결국 동족마을 형성은 전제한 바처럼 가부장적인 종법질서의 일반화와 일정하게 관련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족적인 기반의 확대와 사족지위의 변화에 따른 대응방식이었을 가능성도 크다. 동족마을의 형성시기에 대하여는 막연하게나마 지금까지 17세기 후반이후로 보아왔다. 그러나 이는 각 가문의 족적인 기반이나 그들이 향촌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배경에 따라 많은 편차가 있게 마련이어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동족마을 형성에 관련하여 흔히 인용하는 善生永助(《朝鮮の聚落》 1935, 조선총독부)의 조사결과를 보면, 1930년 조사당시 우리나라에는 모두 1만 5천여 개의 동족마을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는 전체 마을의 3분의 1정도를 점유하는 것으로 이중 저명한 1,685개 동족마을을 형성 시기별로 보면

500년 이상 : 207개소
300~500년 : 646개소
100~300년 : 351개소

(33) 李樹健·金容晩의 앞의 논문

100년 미만 : 23개소
불명 : 458개소

로 나타나 대체로 300~500년전, 즉 15~17세기에 동족마을이 집중적으로 형성된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로 볼때 이같은 동족마을의 형성시기는 문제가 많다고 보여진다. 즉 동족기능을 발휘하거나 실제로 동족적인 기반이 확보되는 실제년대는 이와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지조사를 통해 필자는 이러한 통계상의 동족마을 형성시기가 대개 현재의 동족마을 주민의 直系 血祖로써 특정 인물이 처음으로 입향하는 시기를 代數(대개 1代 30년)로 소급하여 추정하는 수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위의 통계는 동족마을의 형성기반을 마련한 선조나 입향시조의 정착시기로 할 경우 수긍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촌락의 분화나 이주경향을 살필 수 있는 자료는 되지만, 그것이 바로 역사상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정도의 동족마을의 형성시기로 이해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가문별로 사회경제적인 지위나 기반확대의 과정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필자가 확인한 장흥 방촌의 사례를 보면 長興魏氏의 입향시기는 1510년대 어간으로 실제 이들의 문중활동은 18세기 중엽이후 본격화되고, 촌락내에서 주도권을 갖는 시기는 빨라야 1734년 어간을 소급할 수 없음이 자료로 확인된다.[34] 다시 말하면 동족마을에서 문중기반이 작용될 수 있는 상대적인 지위의 인정과 보장, 인물의 배출, 족원의 증가 등이 가능하려면 위의 '유서마련 시기'보다 적어도 2세기(혹은 5~6대이상) 정도가 지나야 실질적으로 동족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따라서 일괄적용에 문제는 있으나 앞의 통계를 150~200년 정도 내려 시기를 잡는다면 동족마을의 형성시기는 대체로 맞을 것으로 보여진다.[35]

결국 동족마을의 형성은 물론 17세기 중엽이후에 나타나는 가부장적인 친족관념의 폭넓은 정착과 진전의 결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기능하는 시기는 이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이해되어야 하며, 이점

(34) 졸고, 〈朝鮮後期 長興 傍村의 村落文書〉《邊太燮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1985
(35) 따라서 앞의 1930년대 통계를 기준할 경우도 형성시기는 150년의 시차를 적용할 경우 1580년 이전의 207개소, 1580~1780년의 646개소 정도로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된다.

은 본고에서 다루려는 촌락의 변화상을 고려할 때 더욱 유의할 대목이다. 부연하면 조선전기의 사족의 이거와 정착으로 이루어진 신생 사족촌락의 발생, 그리고 이를 사회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농지의 확대과정, 여기에 더하여 친족 및 가족제도의 변화가 연계되면서 적어도 그로부터 1~2세기의 시차가 지난 후에서야 동족마을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동족마을의 발달은 이후 촌락의 조직이나 향촌사회에서의 가문 지위를 유지하는 모체로서 조선후기 다양한 문중활동의 기초단위이자 중심처로 기능하였다.

5. 촌락의 분화양상

촌락의 변화배경은 물론 앞에서 살핀 농지의 확대나 분포상의 변화에 기인하는 자연지리적 배경, 촌락민의 의식이 반영된 촌락조직의 변화과정, 또한 친족체제의 변화와 관련되는 동족마을의 형성에서 우선 그 기본 배경이 마련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대체로 촌락 그 자체의 변동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우리는 정부의 향촌통제방식의 변화가 야기하는 촌락의 변화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사족지배체제가 한계에 직면하면서 중앙정부가 추진했던 면리제나 공동납 체제같은 통치방식의 변화가 바로 그것으로, 이 역시 촌락의 구성 및 운영체계를 전면적으로 급전시키는 요인이었던 것이다.[36]

재지사족들에 의한 鄕權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16세기 사족의 향촌지배는 일단 자율성을 지녔었다고 할 수가 있다.[37] 16세기 이래 사족들은 향촌사회에서의 부세운영과 향임층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향규·향약 등의 향촌규약을 만들어 향리와 일반민들을 그들의 지배하에 수렴할 수 있었다. 이처럼 향촌사회에서 사족들이 향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鄕會'로 대표하는 그들 중심의 합의체적 향촌권력기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향

(36) 이같은 체제적인 변화와 제도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리가 필요하겠으나, 본고에서는 일단 기존의 이 부면 연구성과(김인걸, 정진영, 고석규)를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기로 한다.

(37) 이태진, 〈조선전기의 향촌질서〉《동아문화》 제13집, 동아문화연구소, 1976
정진영, 〈16세기 향촌문제와 재지사족의 대응〉《민족문화논총》 제 7 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6

회를 통해 향임을 선출·통제하였고 '鄕規'를 만들어 吏胥와 하층민들을 통제하고 위로는 官權과 일정하게 타협하면서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7~18세기의 조선사회에 있어서 그같은 기본적인 구조는 변질되고 있었다. 즉 사족들의 물적토대가 취약해지고 새로운 계층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성장하여 사족들과 경쟁적인 위치에 서게 되자 중앙정부 및 그 대행자로서의 수령은 소위 신향세력을 끌어들여 궁극적으로는 사족지배권을 약화시키면서 官주도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기존의 사족들에 의한 향회의 권위는 사라지고 심한 경우는 수령의 부세 자문기구로 전락하는 현상까지 생겨났던 것이니, 국가의 향촌통제와 부세정책이 변화되면서 대지주, 혹은 중소지주 등으로 분기를 이룬 재지사족들의 과거와 같은 공동이해('鄕中公論'의 형상)와 一鄕의 支配는 관철되기 어려웠다. 이에 재지사족들은 과거와 같은 鄕案·鄕規·鄕約 등을 통한 一鄕의 지배보다는 혈연적인 族契나 洞契(洞約), 혹은 촌락기반을 매개로 하는 하층민과의 유대속에 자기방어를 모색하고자 하는 上下合契 형태의 洞契(洞約)를 발전시키게 되었다.[38] 上下合契는 양란이후의 사회 경제적 변화와 함께 사족지배체제가 동요됨에 따라 대응형태로 나타난 것으로서, 사족층들이 촌락사회 내에서의 상하민질서를 재확립하려는 의도를 표출한 것인 동시에, 한편으로 보면 하층민을 기반으로 하는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도전받고 있음을 노정한 것이기도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 재지사족들의 향권에 대한 집요함이 사라지고 향안질서가 형해화하는 것, 그리고 친족결속력 강화를 배경으로 확대되는 문중활동, 그 문중 권위의 상징으로 문중서원·사우가 남설되는 현상은 이같은 향촌사회구조, 사족지배구조의 변모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재지사족들의 대응방식도 사족들의 간여를 배제한 채 중앙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일련의 촌락 직접통제 방식에 의하여 서서히 해체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사족들이 중심이 된 洞契·洞約조직들은 부세 단위로 전락하는 소위 공동납 체제로 변화한다.[39] 조선후기 부세체계의 두드러진

(38) 박경하, 〈왜란직후의 향약에 대한 연구〉《중앙사론》 제5집, 1987

(39) 김인걸, 〈조선후기 사회 통제책의 위기〉《진단학보》 제58집, 1984; 〈조선후기 촌락조직의 변모와 1862년 농민항쟁의 조직기반〉《진단학보》 제67집, 1989

특징으로는 부세가 토지를 중심으로 집중 일원화되는 추이와 총액제(공동납제)를 채택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최말단의 부세단위로서 촌락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17세기 이후 부분적인 시행을 거쳐 18세기에 이르러 전국적인 실시가 이루어진 대동법과 18세기 중엽의 均役法, 그리고 田稅에서의 比摠制와 軍役에서의 郡摠制(里定制), 還穀에서의 里還制 등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었다.(40) 이같은 공동납의 강화는 종래 유지되어왔던 사회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음에도 변화된 현실을 충실히 포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향촌사회 내부세력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한편 부세의 단위가 되는 촌락질서자체를 크게 변화시키게 되었다. 리정법도 이같은 공동납의 한 방식으로 국가의 양역부과를 촌락에 부여한 것으로 이같은 제도의 성립자체는 결과물이지만, 그 이면에는 리정법이 동원되어야 했던 현실적 배경이 있었고촌락의 구성면에서 이를 수용할 만한 촌락발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41)

이같은 사족지배 질서의 해체현상과 촌락통제방식의 변화는 이미 자체적인 변화를 겪고 있던 촌락들로 하여금 더욱 빠른 속도로 질적·구조적인 변화를 이루게 하였던 것이다. 조선후기 촌락사회의 분화현상은 바로 이같은 내외적인 변화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조선후기에 일반화되는 이같은 分洞·分村의 문제는 당시 수령들이 직면하게 되는 주요 업무로 부각되어 牧民書에서도 분동의 처리문제가 하나의 항목으로 나타날 정도였다.(42) 촌락의 분화는 외적으로는 촌락의 수량적 증가를 말하여 주는 것이지만, 내적으로 보면 각각의 촌락들이 지녔던 공동체적 기반과 촌락주도세력의 변모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43)

촌락의 분화양상을 살피기 전에 이같이 조선후기에 分化, 分洞되는 자연촌들의 성격에 대하여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서 지적하였던

(40) 김인걸, 〈조선후기 향촌사회 권력구조 변동에 대한 시론〉《한국사론》 제19집, 1988; 〈民狀을 통해 본 19세기 전반 향촌사회문제〉《한국사론》 제23집, 1990; 고석규, 19세기 전반 향촌사회 지배구조의 성격〉《외대사학》 제2집, 1989

(41) 김준형, 〈18세기 리정법의 전개〉《진단학보》 제58집, 1984

(42) 《七事問答》, 文狀 28條

(43) 정진영, 〈18~19세기 사족의 촌락지배와 그 해체과정〉《조선후기의 향약연구》 민음사, 1990
이규대, 〈19세기 영동지방의 洞契〉《조선후기 향약연구》 1990

바대로 사족지배 질서가 유지되던 16~17세기의 촌락구성은 일정한 지연적 공동체로서 수개 또는 10여 개 자연촌락들이 하나의 연합체로서 묶여 있었다. 그리고 이중 사족들이 집거하거나 영향력있는 사족이 거주하는 '洞'(本洞)과 '里'(本里)가 중심촌락으로 이들의 전체명칭으로 불려지고 있었다.(44) '里'와 '洞'에는 사족이 집거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하위에 있는 수개 또는 10여 개의 마을을 지배(통제)하고 그 지배의 툴로서 상위 촌락조직인 사족들의 洞契·洞約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들 광역의 里밑에 존재하던 小村·殘村·自然村들이 바로 18세기 후반이후 촌락분화의 과정에서 독자적인 조직과 규모를 지니면서 독립된 마을로 분화발전할 가능성을 지닌 공동체 단위라고 생각된다. 필자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진주지방의 경우 사족 거주의 '里'들은 모두 그 예하에 5~6개의 자연촌들(屬坊)을 포함하고 있었고, 평균 屬坊의 수는 8~9개, 최다 속방을 거느린 北面 省臺洞里같은 경우는 30개 속방이 예속되어 있었다. 이들 '屬坊'들은 거의 常賤民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 이를 토대로 本里와 屬坊을 기본단위수로 환산했을 경우 반촌과 상민촌의 비율은 1 : 8~9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45) 사실상 이들은 사족들의 관념속에서만 '屬坊'이었을뿐 마을 자체의 운영문제는 스스로의 전래적인 조직을 통해 소화해 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모습은 앞절에서 살핀 촌락민들의 조직인 두레나 '村契類'조직으로서 확인되는 것들이었다.

이같은 촌락분화는 속방의 경우 종래의 고유명칭을 사용하면서 분화되기도 하지만, 본 마을과의 연계가 강할 경우 현재의 지명에서 예를 들면 上○○, 下○○, 內○○, 外○○, 元○○, 舊○○, 新○○, 本○○ 등으로 지명앞에 그 관계가 붙여진 경우는 예외없이 촌락분화의 흔적이라고 보아도 좋다. 이러한 촌락의 분화 분동의 과정을 앞의 촌락변화 요인들과 관련시켜 살펴 보면, ① 산곡이나 계곡의 마을들이 저지대 평지의 농지를 확대하면서 경작인들의 마을이 생겨나는 경우, ② 동족기반을 가진 마을에서 分家나 농지가 있는 인근지역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거쳐 신생하는 경우, ③ 그리고 賦稅

(44) 예컨대 영암 鳩林里의 경우 '열두동네'라는 인근 마을의 모두 포함되고 있으며, 영동지방 助山里, 安東의 佳谷里와 素山里, 공주의 浮田洞 등이 모두 비슷한 양상이다.

(45) 졸고, 〈17세기초 진주지방의 里坊再編과 사족〉《규장각》 제 6 집, 1982

(洞役)의 문제나 마을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분동하는 경우 등등 매우 다양한 모습이었다고 생각된다.

6. 맺 음 말

이상에서 필자는 조선후기 촌락의 변화, 특히 촌락분화의 배경을 주로 촌락 자체의 성장과정이라는 시각에서 재정리하여 보았다. 한편 촌락의 변천과정도 조선전기의 자연촌, 산촌에서 15~16세기의 집촌화 과정과 16~17세기의 사족 중심적인 중심촌의 주도력, 그리고 이것이 18세기이후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함께 촌락의 조직과 운영체계가 '분화'하는 현상으로 크게 구분하여 보였다.

조선후기 촌락의 변천 배경은 내재적인 촌락의 자체 성장력과 해당 시기의 사족지배력이나 봉건체제의 변화과정의 결과물이라고 생각되지만, 본고에서는 그중에서도 특히 촌락 내적인 변화요인들을 중심으로 일단 주목되는 농지의 확대와 생산력증가, 촌락민 조직의 변화과정, 그리고 동족적인 기반위에 형성되는 동족마을의 문제, 또한 이와 연계되어 조선후기 촌락변화의 구체적인 모습인 촌락분화를 다루었다.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먼저 농지의 확대과정은 산곡이나 계곡에서 저지대와 평야지대로 농지가 확산되면서 촌락의 분포가 이에 따라 확산되고, 그 과정을 주도하던 사족에 의한 중심촌락의 주도력이 해소되면서 관할하의 소촌들이 독립적인 마을 운영체계를 갖게 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다음으로 촌락조직은 사족지배질서의 이완과 함께 생산력의 발전 및 농업생산의 변화과정에서 농민의식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원래 고려이래의 전통적인 생활공동체로서 촌락민 조직들은 조선전기 성리학적 교화이념이나 사족지배질서하에서 그 예하 기구로 흡수되지만, 17세기이후 촌락민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서 상하합계나 더욱 발전된 경우 촌계류의 자체 조직을 지니게 되었다. 특히나 노동조직인 두레의 활성화는 이러한 촌락민 조직을 주도하는 중심체가 되었고, 봉건체제가 이완되는 시기에 이들의 기능과 성격은 촌락의 운영에 참여하고, 나아가 변혁운동의 동원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지니게 되었다.

한편 17세기 후반이후 친족적인 부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친족결속의 양상이 구체화되는 시기에 촌락구성 역시 동성동족에 의한 동족마을이 일반화의 조짐을 보여주게 된다. 이같은 동족마을의 형성은 18세기 후반이후 더욱 일반화하지만, 이들 동족마을 조직의 결속력과 폐쇄성은 마을내에서의 동족과 비동족간에, 혹은 동족간, 마을과 마을간의 차별성과 주도권문제로 전이될 가능성이 컸다. 여기에 더하여 이 시기 정부의 향촌통제방식이 갖는 외적인 변화요인이 작용하면서 촌락의 기본적인 공동체적 질서나 마을간의 연대감은 급격하게 변화하기에 이르렀다. 즉 사족지배체제가 한계에 직면하면서 중앙정부가 추진했던 면리제나 공동납 체제같은 통치방식의 변화가 바로 그것으로 이 역시 촌락의 변화를 진전시키는 요인이었고, 그 결과는 대체로 촌락의 분화(분동)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필자 : 목포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